

REACH 등록 EXPO 7월22일 개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중소기업청은 6월1일 시작된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사전등록과 관련해 국내기업들에게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기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REACH 등록 엑스포 2008> 5차 행사를 7월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엑스포에는 Steptoe & Johnson, ROR, KIST-Europe 등 REACH 업무에 경험이 많은 국내외 컨설팅기관 및 법률회사 18사가 총 20개의 상담부스를 차리고 등록을 준비하는 국내기업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 상담과 함께 진행되는 REACH 세미나에서는 REACH 대응을 위한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REACH (사전)등록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또 EU 현지에서 유일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REACH 전문기업을 통해 EU 역외 기업의 입장에서 (사전)등록 전략과 추진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로, EU에서 연간 1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EU로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이 계속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한 2008년 6월1일-12월1일 사이에 사전등록을 해야한다.

특히, 무역상사를 통해 REACH 등록대상 물질이 EU에 수출되면 무역상과 해당 물질의 제조자간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등록주체(EU의 수입자 또는 유일 대리인)를 시급히 결정하고 대응해야 해당 물질을 차질 없이 EU로 수출할 수 있기에 공급망의 업체간 활발한 의사교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화학저널 2008/07/21>